

# “아 아빠, 술냄새가 싫어요”

‘꺄, 술냄새가 싫어요.’ 자주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 주당이라면 한번쯤 아이들에게서 들었던 소리일 것이다.

술이란 마실 땐 좋으나 다음날에는 속취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된다. 사회적으로도 마시지 않으면 묘하게 왕따 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만든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는 술 마실 기회가 많으며 여러 명목의 술모임이 있다.

대부분 술하면 간을 우선 생각한다. 간장약 광고에는 으레 술이 등장한다. 전날 술을 많이 마신 날이면 간장약 한 알은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술 때문에 간이 나빠졌다는 사람들도 많다. 직장인들의 신체검사에서 흔히 보는 병명 중에 하나가 지방간이며 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술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간에만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심혈관, 신경세포 등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나 술이 남성의 생식기능이나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불안한 마음에 별기가 잘 안 된다며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 술을 마시면 사정시간이 지연되어 조루가 치료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불안하여 성관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항상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다는 것도 못할 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심리치료나 행동요법으로 치료를 받는 편이 빠르다.

술은 가정적으로도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는 가정의 평화를 파괴한다. 만취와 피곤함은 성관계 횟수에 지장을 주게 된다.

대부분 피곤으로 인하여 술에 취해 잠자기에 바쁘다. 부인은 성적욕구 해소에 정신적으로 갈등을 느끼게 마련이다.

간에서 원활히 해주어야 할 알코올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성호르몬대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남성호르몬대신 여성호르몬의 증가는 간혹 남성의 유방을 키우기도 한다. 남성호르몬의 저하는 성욕부진을 가져온다. 술은 또한 고환조직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어 정자형성에 지장을 주며 불임을 가져올 수 있다.

인류에게 술의 최초 역사는 신성한 것이었다. 농경생활에서 신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술은 그런 신에게 경배를 하기 위한 제수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덧 술이 가져다주는 매력 때문에 주변생활에서 흔히 자주 마시게 되었다.

술을 약간만 마신다면 기분이 좋아지고 말이 많아지며 잘 흥분한다. 중추 및 말초신경이 흥분되고 위산분비가 촉진된다. 뇌에서 도파민의 증가는 기분이 좋아진다.

체내의 알콜 농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기분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중앙기능이

약해진다. 통제하에 놓여있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술을 마셔 면 울거나 웃거나 한다. 조금 더 지나면 자꾸 즐리게 되면서 혈압이나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노의 통제를 미비하는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어진다는 사람을 만들고 근육의 미비는 호흡곤란을 가져온다.

술을 마시다 죽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K씨 부부는 중매반 연애반 결혼을 하였으며 아이 하나를 두었다. K씨는 서른 살이 넘어서 남보다 늦은 결혼을 하였다. 집안분위기가 있어서인지 결혼전 남들과의 성관계라고는 술집에서 두세 번밖에 없었다.

사실 신혼 때부터 사정이 빠른 것이 고민되었지 발기는 문제가 없었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병원에 온 까닭은 조루문제도 있지만 성욕이 없어서였다.

부인 말이 성관계를 해본 지가 6개월도 넘었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니 신혼 생활 때도 성관계를 자주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잘 모른 턱에 별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최근 들어 여기저기서 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봇물 터지듯이 나오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남편은 지방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아이 때문에 주말부부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말에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잠만 자거나 TV를 보는 일로 소일 하였다고 한다. K씨는 업무특성상 거의 매일 술자리가 있었다. 현장 일이라는 것이 사람들 만나고 통솔하는 일인만큼 술자리가 많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돌아와서도 피곤해서 잠만 자게 되더라는 것이다.

성관계가 없다보니 부인은 혹시 ‘남편이 새로운 여성이 있나’ 의심을 하기도 하였다. 자신도 진찰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부인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병원에 오게 된 것이다.

성기능 검사상 성욕 감퇴로 외부의 자극에도 K씨의 남성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거의 매일 마시다시피 한 술은 신체를 지방간에 고지혈증으로 바꾸어 놓았다. 만성피로까지 겹쳐서 성욕은 남의 나라 이야기로 되어버린 것이다.

“아니 벌써 제 나이에 갱년기 현상이 왔다고요. 앞으로 술을 끊고 집에 일찍 들어 가야겠네요.” 하며 탄식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 일단 원인을 알면 치료가 쉬어진다. K씨는 술을 끊거나 양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

잦은 술자는 간뿐만 아니라 발기에 영향을 준다. 더욱이 고지혈증은 음경내부의 혈관을 막아서 발기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 돌아오지 않는 발기력은 결국 남성의학에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

문의전화 02)779-4400



이윤수비뇨기과 원장